

양돈장에서의 사료비 절감방법

김재원 양돈P.M
(대한제당(주) 무지개 사료)

1. 서론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89년도의 일반 육성돈의 사료 가격은 5,555원이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는 약 30% 이상 가격이 인상되었고,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상승된 돼지의 생산 원가는 약 2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재료비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더군다나 돈가는 낮은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향후에도 예전과 같은 고가격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가의 60~65%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 본론

사료비의 절감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모돈, 자돈, 육성돈 등 생산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모돈의 사료비 절감

모돈은 임신기와 포유기에 걸쳐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급여를 해야 한다. 농장을 방문하다 보면 규모도 있고 경력도 제법된 농장인데 의외로 모돈 사료의 급여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급여상의 편리함 때문에 포유기 사료를 임신기까지 급여한다든지, 자동 급여기 한 눈금의 사료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유 후

강정기에 임신돈 사료를 급여하는 사례 등이다. 그런 경우 모돈 체형의 불량, 발정 불량, 난산, 비유 부족, 산자수의 저하, 생시 또는 이유 체중의 감소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를 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체형(Body Condition)의 불량은 외부로 나타나는 모돈 상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른 모돈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추가 사료비가 들게 된다.

유럽의 양돈 선진국들에서는 우리보다 낮은 단백질, 에너지의 모돈 사료를 연간 약 1,100kg을 급여하고도 PSY 24두내외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농장에서 모돈 한 마리가 1년간 먹는 사료량을 한 번 계산해보면 쉽게 1,200kg은 넘는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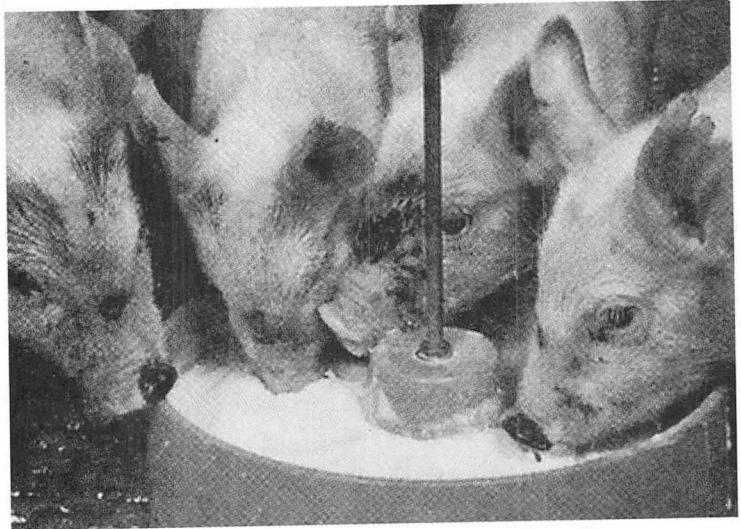
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00kg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모든 100두 규모 농장을 기준으로 사료비를 비교하면 7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성적의 차이까지 생각하면 그 금액의 차이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차이는 왜 생길까? 가장 큰 이유를 들면 우리 나라의 길고 추운 겨울 동안의 온도 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겨울에 돼지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열을 발산한다. 쉽게 생각해서 돼지를 난로라고 하면, 그 난로에는 연료가 들어가게 되는 데, 그것이 사료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료의 열효율은 기름이나 가스보다 엄청나게 나쁘다. 결국 엄청난 돈의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반대로 너무 더운 경우도 사료 섭취량이 떨어져 결국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열, 급온, 적절한 환기가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고, 농장 사정에 맞게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돈의 사료비 절감

갓난 돼지 사료는 먹는 양은 적으나 가격이 워낙 비싸므로 소량의 허실도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입블임의 기본이 신선한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하는 것이라는 이론은



많이들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농장의 사정상 여의치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입블임을 생후 2주령 이후로 늦춰 보자. 사료의 허실도 줄어 들고, 부적절한 급이로 생기는 부작용도 막아 성장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유 후의 자돈은 대부분 두형 건식 급이기를 이용하는데 자돈, 육성돈을 막론하고 이런 급이기의 사료 허실은 최소 6%, 많게는 15%까지도 생길 수 있다. 또 급이기 안에 발을 넣거나, 드러눕고 배변을 하기도 한다. 급이기의 높이, 폭, 급이구의 갯수, 급이기 내의 사료 높이, 급수기의 위치 등이 사료의 허실과 오염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결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육성돈의 사료비 절감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자돈 사료를 육성, 비육기에 급여하는 문제이다. 25kg에서 105kg까지 성장하는 데, 사료요구율이 2.8이라고 가정하고, 자돈대 육성돈 사료 비율이 4:6인 경우와 자돈 사료로만 급여한 경우의 사료비만을 비교해 보자(자돈과 육성돈 사료의 가격차 32원/kg일 때). 자돈 사료로만 급여하는 경우 마리당 4,300원의 사료비가 더 드는 결론이 나오고, 모든 100두 규모 농장에서 1년간 1,900두를 출하할 때 817만원의 사료비가 더 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물론 자돈 사료만 급여하는 농장에서는 성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료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

서는 자돈 사료를 육성, 비육돈에 급여하면 성장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농장에서 밀사, 급여기 불량 또는 부족, 급수량 부족, 열악한 환경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사료 섭취량에 제한이 걸린 경우는 자돈 사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여름철 모돈의 섭취량이 떨어질 때 고밀도 사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또 농장의 호흡기 질병으로 성장에 지장이 있을 때 자돈 사료에 첨가된 약제가 성장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설, 환경의 문제는 그 자체를 해결해야 하고, 호흡기 질병 문제는 주사 또는 효과적인 집중 투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사료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료의 허실을 막기 위해서는 습식 급여기의 사용도 권장된다. 체중 35~105kg, 사료 요구율 2.7인 경우 사료 허실을 5% 정도만 줄이면 20두 돈방에서 한 번 비육돈 출하시 56,000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건식 급여기를 습식 급여기로 바꾸는 것은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돼지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여 사료 섭취를 늘리는 급여기나 돈방 안의 전체 돼

지가 한꺼번에, 자주 사료를 먹을 수 있는 형태의 건식 급여기도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펠렛 사료를 사용하는 것도 허실의 감소, 섭취량 증가 등의 원인으로 가루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소모성 질병이라고 말하는 호흡기 질병이야말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 소모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1월부터 시작하여 돈사를 개방하기 전까지 생기는 성장 저하, 돼지가 길쭉하게 크고 살집이 잘 붙지 않는 것, 비육 후기에서 성장이 잘되지 않아 비육 후기 사료를 급여할 수 없는 문제 등 수많은 농장의 어려움이 이 호흡기 질병 때문에 발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무지개 사료의 병리 연구실에서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장에서 80~100일령에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이 시기의 투약이나 사전 백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치료비, 사료비 등의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오제스키와 PRRS 등도 비육돈에서의 심각

한 호흡기 질병 증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므로 예방, 검사, 백신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돈가가 떨어지면 가격이 싸고 수준이 낮은 사료로 변경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생산성의 저하로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결론

농장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증체 kg당 사료비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기록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장에서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양식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농장을 파악하는 것이 사료비 절감의 첫 걸음이라고 하겠다.